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13차 세계기생충학회 총회의 '코리아 나이트' 행사에서 한복체험을 하는 총회 참가자들. 한국은 홍보관을 운영하고 주멕시코 대사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132억원의 매출 효과가 있는 차기 총회 유치(대구)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총리·장관이 세일즈...총성없는 관광전쟁

국제회의 유치 각축전

각국 NTO 중심 장관·총리까지 나서 유치전
대구시 15개월 공들여 세계기생충학회 유치
포항관광·전시회 등 일자리 창출 효과 톡톡
속박·공방시설 등 인프라 경쟁력 구축 속제

“15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이 정도 정성 없으면 회의 유치는 꿈도 꿀 수 없다.”

이쯤이면 ‘총성 없는 전쟁’이다. 각종 국제 학회나 협회의 총회는 원래 학자와 산업계 또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모이는 전문적인 행사다. 그러나 요즘은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공을 들이는 자리가 됐다. 바로 국제회의 유치 때문이다. 협회나 학회 주관의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하려고 각국 NTO(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국가관광진흥기구)를 중심으로 장관, 총리까지 나서는 총력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부가가치 높은 관광산업…대형회의는 3년 전부터 유치 준비

15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13차 세계기생충학회 총회. 60여개국 기생충, 열대의학 전문 학자들이 모인 행사에서 대구시는 2018년 차기 총회 개최도시로 결정됐다. 대구시는 멕시코시티 총회에서 태극 방곡과 경장을 벌인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부터 대한기생충학회·열대의학회, 대구시, 대구컨벤션관광부로 등 학회,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모두 나섰다. 멕시코시티 유치실무진의 일원이었던 관광공사 오유나 MICE부로 컨벤션팀 차장은 “15개월 전인 2013년 5월부터 준비를 했다”며 “이 정도는 보통이고, 규모가 더 큰 1만 여명 참가의 회의는 적어도 3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에게 생소한 전문학술회의 하나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회의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른 MICE(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그만큼 경제효과나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관광공사 박인식 MICE진흥팀 팀장은 “회의참가자 1인당 지출액이 일반관광객보다 1.6배로 높고, 숙박과 같은 관광시설 외에 행사장 임차, 각종 시설·장비 임대, 케이터링, 수송, 광고홍보, 인쇄 등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산업도 연결되어 지출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기생충학회 대구 총회의 경우 국내외에서 3000여명이 참가해 6일 동안 132억원을 지출하고 22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만의 유니크 밸류 개발 필요

한국은 국제회의산업에서 떠오르는 신흥강국이다. 국제협회연합(UiA)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회의 개최건수에서 2000년 109건에 머물던 한국은 2013년 635건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남다른 효자 종목을 노리는 국가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미래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이제 총회가 열리는 국가의 주재 공관에서 유치 행사를 개최하거나 대사가 나서 정부 지원을 ‘보증’하는 것은 보통이다. 멕시코나

호주는 총리가 유치를 호소하는 지지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두바이는 왕세자가 협회 회원국에게 편지를 써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회의산업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 수단으로 여겨 회의 유치 현장마다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현재 싱가포르와 일본 외에도 중국이 막강한 내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하이, 베이징을 앞세워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국제회의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박인식 팀장은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시설, 유럽이나 미주에서 지방 개최도시까지 쉽게 올 수 있는 공항시설, 서울에 편중된 관련인력의 지방분산”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꼽았다. 해외 유치 현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을 벌였던 오유나 차장은 우리만이 가진 유니크 밸류(unique value)의 강화를 지적했다. 오 팀장은 “중국은 만리장성, 영국은 버킹검궁을 행사에 활용하는 등 자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경험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그런 유니크 밸류 면에서 아직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kuid

싱가포르 원스톱 시스템, 국제회의 유치 절대강자 초석

유관기관-업계 업무 제휴 뿌리부터 탄탄
“작은도시도 매력적으로 만드는 능력 탁월”

그동안 국제회의산업에서 강국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 많았다. 각종 국제기관이나 협회 본부가 있고 국가간 이동이 편한 강점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시아 국가들이 앞 다투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국제회의의 주축진수에서 상위에 대거 올라왔다. 그중 절대 강자는 단연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국제협회연합(UiA) 조사에

서 2012년 960건, 2013년 994건으로 유럽과 미국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 있다.

싱가포르가 국제회의 유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건 ‘원스톱 시스템’으로 불릴 정도로 유기적인 협조체계 덕분이다. 관광공사 박인식 MICE진흥팀 팀장은 “싱가포르의 관광자원이 약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즈니스 트래블, 즉 MICE산업을 집중 육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정부 관련 업계간의 업무제휴를 아주 탄탄하게 구축했다”며 “각종 국제기관과 협회의 아시아 지부 유치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고 평가했다.

작은 도시국가로 부족한 관광자원, 높은 물가 등의 약점을 커버하는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도 싱가포르의 강점. 관광공사 오유나 MICE부로 컨벤션팀 차장은 “천혜의 관광자원도 없고 특별히 내세를 특산품도 없지만 해변이나 도시 곳곳에 특별한 의미나 역사성을 부여해 회의 참가자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으로 꾸미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며 “최근에는 새로 지은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를 다른 데서는 접할 수 없는 유니크 밸류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국제회의산업의 절대 강자 싱가포르가 회의유치 매자신들의 '유니크 밸류'로 내세우는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 스포츠동아DB



우승가운데 허덕이는 한국바둑을 구하기 위해 26일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본선32강에 이세돌, 박정환, 이창호 등 정예 11명이 출전한다. 사진은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본선 개막식. 사진제공 | 한국기원

반상의 별들, 중국에 다 모인다 삼성화재배월드바둑마스터스 26일부터 본선

세계 바둑 별들의 무한경쟁의 장인 2014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가 본선의 문을 활짝 연다. 26일부터 중국 산둥성의 중심도시인 칭다오 상그릴라 호텔 특별대회장에서 사흘간 32강 열전을 치른다. 25일에는 대진추첨을 겸한 개막식을 개최한다. 삼성화재배는 바둑의 글로벌화와 중국의 높은 바둑인기를 고려해 본선 개막식을 매년 중국에서 개최해 왔다. 이번 칭다오 대회는 쑤저우(2010), 베이징(2011·2012), 상하이(2013)에 이어 네 번째이다. 본선 32강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의 바둑고수들이 출전한다. 국가별로는 한국 11명, 중국 16명, 일본 3명, 대만 1명, 미국 1명이다. 앞서 치른 통산예선전의 한중대결에서 한국이 3승4패로 밀리는 바람에 32강 출전선수는 중국이 한국보다 많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중국의 탕웨이싱과 삼성화재배 최다 우승기록(4회)을 보유하고 있는 이세돌, 한국바둑계의 신화 이창호, 한국과 중국의 랭킹 1위 박정환과 스웨 등이 출사표를 냈다.

32강전은 삼성화재배의 독창적인 대회 진행방식인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치른다. 32명을 추첨을 통해 4명씩 8개조에 배치한다. 각 조 2승자와 2승 1패자가 16강에 진출하게 된다. 한 번 패하더라도 16강 진출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는 한국바둑계에 악몽의 한해였다. 6대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모두 중국에 내주며 한국바둑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올 초 LG배도 중국이 우승했다. 이번 삼성화재배는 한국에 물리칠 수 없는 대회다. 역대 우승횟수는 한국이 11회로 중국의 5회를 압도한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16강전과 8강전은 10월 ‘국제대회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대전시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열린다. 준결승 3번기(11월)를 거쳐 12월 중국 시안에서 결승3번기로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무르익는 가을 정취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어쿠스틱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폴 인 어쿠스틱 페스티벌’ 사진제공 | 대명리조트

秋, 어쿠스틱 사운드 바람

비발디파크 내달 20일 폴 인 어쿠스틱 페스티벌

가을이 무르익는 9월 중순, 리조트에서 즐기는 어쿠스틱 사운드의 즐거움은 어떨까.

요즘 리조트와 테마파크들은 ‘4계절 영업’을 추구하면서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대명리조트가 9월20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여는 ‘폴 인 어쿠스틱 페스티벌 2014’는 그런 변화의 대표작인 모습이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폴 인 어쿠스틱 페스티벌’은 비발디파크의 천연잔디 광장을 무대로 포크, 재즈, 모던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올해 출연진은 장필준, 정준원, 웅산, 노을, 범기, 탈라스왓, 디어클라우드, 라 벤타나 등 여러 장르에서 확실한 자기 음악세계를 가진 뮤지션들이 나선다. 출연진의 면면과 장르의 다양하지만 이들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점은 자연이다. 행사 제목의 ‘어쿠스틱’이란 단어가 상징하듯 인공적인 음향효과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런 사운드의 음악을 흥천의 자연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웰리스트 송영호와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의 협연과 이탈리아 퓨전 재즈 록 밴드 노 콰르텟 등 음악 장르의 폭을 더 넓혔다.

요즘 뮤직 페스티벌이 봄을 이루면서 일부 행사는 과도한 티켓 값으로 거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비해 ‘폴 인 어쿠스틱 페스티벌’의 티켓은 조기예매 2만7000원, 정상가 3만원으로 비교적 ‘착한 가격’을 지향하고 있다. 또 서울과 비발디파크 간 무료왕복 셔틀을 운행해 지방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에서 고민하던 교통혼잡과 귀가전행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덜었다.

김재범 전문기자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22일 개장

축구장 33개 규모 자동차 문화 체험공간
40가지 BMW·MINI 차량 고객 이용 가능

‘색다른 자동차 문화를 체험해보세요!’

BMW코리아가 22일부터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를 공식 개장한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로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

시 및 체험 공간,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됐다. BMW, MINI 고객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드라이빙 트랙은 다목적, 다이내믹, 원선회, 가속 및 제동, 오프로드 등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40가지 56대의 BMW, MINI 차량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M 택시, 오프로드, 챌린지 A·B, 어드벤처, 조이 투어 등 총 6개로 운영된다.

어드벤처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은 고객을 위해 마련된 코스. 안전운전 요령부터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스킬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조이투어는 별도로 마련된 14인승 전동 카트를 타고 드라이빙 트랙의 외부를 돌면서 전체적인 트랙의 설명과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니어 캠퍼스로 마련되어 있다. 자동차 과학 교실,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 키즈 드라이빙 스쿨 등 초등학교생을 위한 현장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BMW그

룹코리아 김효준 사장은 “BMW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은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자동차를 경험하며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예약은 회원 가입 후 드라이빙 센터 홈페이지(www.bmw-driving-center.co.kr, www.mini-driving-center.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